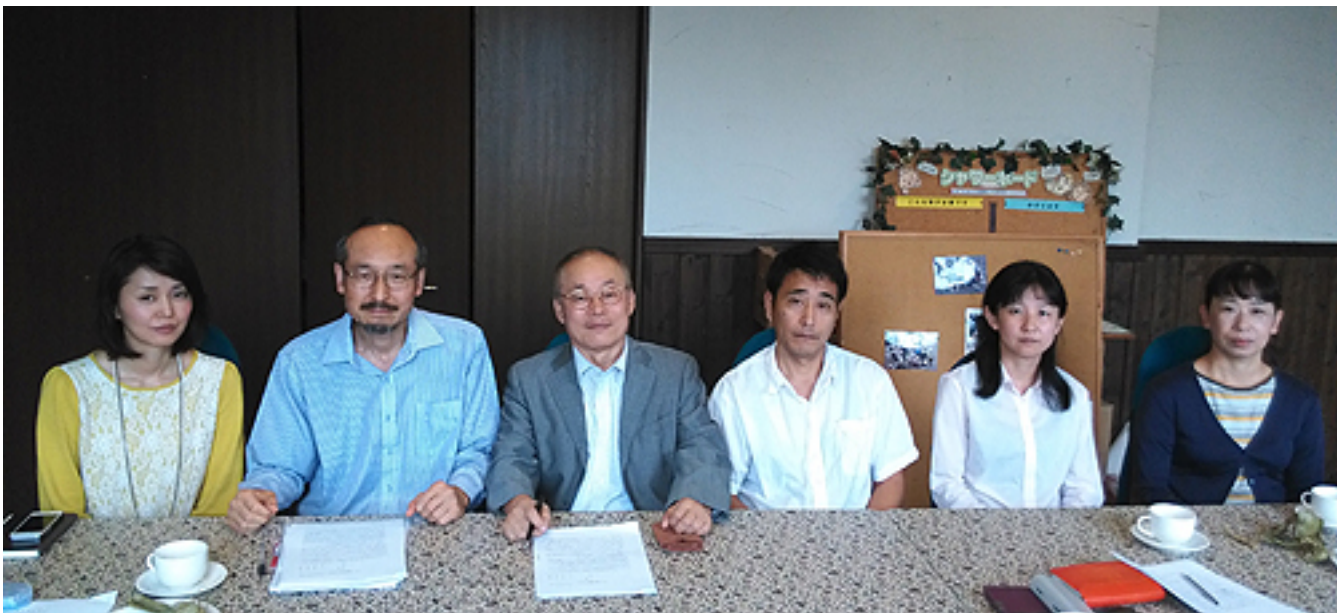


㊤법원 변 목사 판결, “증거에 눈 감고 허위만 인정”

변재창 목사 측, 고법 판결 부당성 강력 항의 [2015.09.02 10:29]

동경지방법원 민사 1심(작년 5월 27일)과 고등법원 민사 2심(7월 29일)은, 변재창 목사의 성추행(セクハラ) 혐의를 인정하고 원고측 여성 4명에게 1,540만엔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 재판 승소 확률 0.14%의 벽을 넘은 변 목사에게 오히려 민사 재판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본지는 28일 츠쿠바에서 변 목사와 교회, 신학교,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관계자들은 변호사들의 공식 입장과 교단 측의 성명도 함께 발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패소한 참담한 심경을 표명했다. 또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본지는 원고 측의 반론이 있을 경우 이 또한 게재할 것을 알린다. - 편집자 주-)



▲교단과 신학교, 출판사 주요 관계자들.(왼쪽부터) 츠쿠바교회 담당 후지미야 목사,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코노 총무, 변재창 목사, 소목자출판 요시다 사장, 신학교 교무 및 해외선교 담당 아사노상. 교단 코노 총무 사모. 이들은 모두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변 목사와 함께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강성현 기자

◆1심 판결 앞두고, 5년간 심리해 온 판사 3명 전원 갑작 교체

변 목사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민사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약 5년, 2심 판결까지는 약 6-7년이 소요됐다. 민사는 일본인 여성 4명이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수십 번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일반 매스컴까지 달려들어 교계는 물론 세상의 이목까지 주목시켰다. 그 동안 형사 재판의 경우 정확한 재판증거주의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변목사의 억울함이 입증되기도 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변 목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보다는 원고 측의 피해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편견과 차별이 담긴 판결이라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사 1심 재판은 진행 도중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재판관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5년간 심리해 온 판사 3명이 판결까지 한 달을 앞두고 모두 교체된 것이다. 당시 1심 판결 일은 2014년 4월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뒤인 5월로 판결이 연기됐다는 통보 후, 변 목사의 심리를 맡아 온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결국 사건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판사들이 지난 5년 간의 심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은 2심 고등법원 재판 중에서도 있었다. 여자 판사 1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체됐다.

◆같은 사건인데...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어떻게 이런 일이

보다 큰 문제는 변 목사 측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전부 제출하고, 대부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

한 예로 피해자 HE는 2007년 2월 17일 변 목사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이를 포함한 50여건의 성추행 관련 진술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07년 2월 17일 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결과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민사 재판부는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험한 해석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위증 가능성이 농후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교회 측은 성명에서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진술이 그 날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조차도 다른 날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지 못한 사건이다. 분명한 거짓 진술로 판명이 나서 항소도 하지 못하고 1심에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무고무죄 판결로 끝났는데, 어떻게 민사재판은 이 모든 것을 교묘히 무시하고 자칭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사 판결은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변 목사는 이에 대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기 국민 편에 선 이번 판결은 완전한 편견이고 차별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한 증거를 제출했고, 그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됐는데, (오히려 민사 재판부가) 빌빌 돌려서 다른 날 일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겁한 차별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형사재판, 그 날 그 시 1 건만 다뤘다?, 이는 전적인 오해

변 목사가 일본 검찰로부터 기소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 피해자 4명 중 1명으로 그녀가 정확히 날짜를 지목한 2007.2.17일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날 그 시 하나의 혐의만 검찰이 다루고 조사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은 다르다. 변 목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약 50여건의 성추행을 검찰에 진술, 그 양은 서류 두께가 15cm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변 목사 자택과 교회, 피해자들 등 압수수사를 통해 인사 습관, 가정생활 습관, 성생활 습관, 과거 인간 관계, 이제까지의 이성관계, 저서, 설교, 강연, 성경교제 등 모든 서류와 일기장, 큐티노트, 증언, 진술 등의 압수 증거물을 찾아 철저히 조사했다. 결국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남은 한 건 마저도 1년 6개월에 걸쳐 14번의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승소했다.

또 일부에서는 형사보다 민사재판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또한 그와 반대다.

민사재판의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는 데다 양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진술서만 오고 갈 뿐이다. 1심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 목사가 직접 재판장 앞에서 변론한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졌다. 고등법원 재판 시에는 직접 변론의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렸다.

교회 측은 “형사재판 판결은 100여명의 경찰들과 다수의 검찰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통해서도 단 하나의 성추행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했다. 한 마디로 형사 무죄 판결은 피해자가 주장한 50여건의 성추행 진술에 대해 그 외의 모든 정황적 가능성들까지도 있을 수 없었다고 보증해 버린 판결”이라고 했다.

◆피해자들 주장에 대한 신뢰성과 진정성은?

교회와 신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주장한 성추행 진술에 진정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코노 총무는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전에도 성적인 이런 관계가 있었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그것을 끊지 못했다”며 “변 목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가까이 하려 했던 자,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 자, 정신질환으로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자, 다른 교회에서도 이성문제로 쫓겨난 자 등 처음부터 신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B의 경우 결혼 전에 남자와 동거를 했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그런 문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이전에도 결혼하려다가, 상대방과 결혼하기 싫으면 성추행 문제로 뒤집어 씌운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 A의 경우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에 오지 못할 때의 이유가 남자의 집에 있어서였다. 신학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변 목사는 “나이 많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애인이 되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나 못쓰겠나. 돈을 받고 같이 살고 생활도 했다”고 밝혔다.

◆교회 공격하는 MK 그룹, W 그룹 등 배후 세력과 피해자들 상담 증거도

한국의 모 인터넷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 70여건의 성추행 혐의를 민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변 목사 측에 따르면 70여건이라는 숫자는 재판 중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한다. 소목자출판 요시다 모토무 대표는 “피해자 측은 70여건이라는 숫자를 P.R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전부 넣어서 50건 혹은 70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많구나 라는 인식을 심는 게 (교회를 공격하는) MK 그룹의 방식이다. 전략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판 중에 원고 피해자들이 MK 그룹에 편지를 보내 상담을 하고 문의했다는 증거 자료도 제출됐다.

그럼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무엇일까. 마침 변 목사 사건이 터질 당시 오키나와 남부의 목회자들은 이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에 대해 성명문도 발표했다. 소목자출판 요시다 대표는 “원래는 MK 그룹의 경우 통일교나 여호와의증인 등의 탈퇴자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피해자와 교회, 피해자와 목사 사이에서 중개료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점점 교회를 치자고 선동하는 그들의 방식은 동일하다. 보도를 먼저 내고 숫자를 모으고 재판을 거는 패턴”이라고 밝혔다.

◆ I·K 출판사와 C 신문, 경쟁사인 소목자출판 발행지 ‘폐간됐다’ 선동

경쟁 출판사의 의도적인 음해 가능성도 배어있다. 변 목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 교계에서 가장 큰 ik 출판사 계열인 교계 C 신문은 8주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격성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변 목사는 시기적으로 은퇴 이후이기 때문에 소목자출판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목자출판 행복한사람(幸いな人)의 변재창 선교사...’라는 식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뿐만 아니다. I·K 출판사는 소목자출판이 발행하는 ‘행복한사람(幸いな人)’ 독자들에게 변 목사 문제로 곧 폐간된다는 거짓 정보도 흘렸다. 그리고는 ‘행복한사람(幸いな人)’ 대응지를 준비하고 독자를 자기 측으로 편입시켰다. 소목자출판 요시다 대표는 “I·K 출판사는 큰 출판사이지만 이전부터 작은 곳들에 손을 대고 합병하면서 커져 왔다. 하지만 소목자출판은 건드리지 않았다. I·K 출판 사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행복한사람(幸いな人)’은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손을 대도 무리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찬스라고 생각했다. 기사에도 제일 먼저 소목자출판을 사용했고, 독자들에게는 곧 폐간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라고 추천했다”고 했다.

한 마디로 거짓 소문을 선동하고 경쟁사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요시다 대표는 독자들로부터 “‘행복한사람(幸いな人)’이 없어지나요. 서점으로부터 팩스를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요.’라는 식의 문의를 받고 I·K 출판사의 선동 행위를 알게 됐다고 했다.

I·K 출판사 TG 회장은 당시 소목자출판 대표에게 ‘한 번 만나자’는 전화를 수 차례 하기도 했다. 의도는 말하지 않았지만, 요시다 대표는 합병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저에게도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었다. 소목자출판을 I·K 출판사와 합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합병하면서 왔기 때문에 소목자출판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복한사람(幸いな人)’은 당시 일본 전역에 1만부 정도의 독자층을 갖고 있었으나, I·K 출판사의 음해로 약 3천부 정도의 독자를 빼앗겼다고 했다. 지금 ‘행복한사람(幸いな人)’은 회복세를 보이며 4천부 정도의 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변재창 목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약 7년 동안 사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강성현 기자

변재창 목사는 인터뷰를 말미에 이 말은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물론 여기 누구도 정식으로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지난 7년간 한국에서

1 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은 은행 용자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용자를 먼저 갚는다고 교역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줬다.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싸우고 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자처했겠나. 얼마나 이 사실이 결백하다고 생각했으면, 7년 동안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벌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같이 싸우고... K 목사 같은 경우(변 목사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어갔다) 뜨거운 땀별에 20킬로 기와 장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지붕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소목자출판도 다 불런티어로 일한다. 출판도, 교회도 다 그렇다.

만일 이 문제가 결백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 하겠나.

그들(피해자여성들)에게 변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과 증거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다 떠나갔을 것이다. 또 내가 성추행을 했다면 언제라도 증거가 나올 텐데, 재판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싸울 수는 없다. 나는 지금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교역자들, 제자들, 신학교 교수들, 헌신자들, 사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돈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싶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자비량으로 오랜 기간 헌신하겠습니까.)”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